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칼을 갈 때는 숫돌을 쓰고
재목을 다룰 때는 도끼를 쓰고
자신을 다룰 때는 지혜를 써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2월 18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39호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韓·中 사드 갈등 '불교교류'가 푼다

사드 배치 논란, 불교계 영향 없나

사드 배치를 두고 한국과 중국의 갈등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한 · 중 양국은 불교 교류가 활발했던 만큼, 사드 갈등 국면으로 인한 악영향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한국불교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중국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당면한 교류사업은 매년 열리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이다. 한국 참가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중국과 일본불교 측과 오는 3월 22~24일 제주도에서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한국대회 준비를 위한 예비회의를 연다.

하지만, 중국불교 측은 제주 롯데호텔에서의 투숙을 거부한 상황이다. 지정된 호텔에서 회의와 숙박을 함께하는 것은 관례였다.

종단협은 중국 불교계가 회의를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종단협 관계자는 "중국불교 측에서 롯데호텔에서 묵긴 어렵다고 연락이 와서 인근 호텔을 소개했다"며 "한 · 중 갈등 상황을 주시하며 한국대회 준비에 역량을 집중해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생과 화해를 위한 한 · 중 불교교류는 계속된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한 · 중불교교류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선묵 혜자, 이하 108산사순례회)가 오는 5월 21일부터 25일 중국 저장성 일대에서 진행하는 '설두사 성지순례 및 평화의불 봉안' 행사다. 108산사순례회는 네팔 룸비니에서 채화한 '평화의불'을 DMZ를 비롯한 다양한 갈등 지역에 분등해오고 있다.

이번 중국성지순례에서는 영보 설두사를 비롯해 주산 보타낙가산, 상해 옥불사, 항주 영은사, 한산사 등 순례가 진행된다. 특히 22일 설두사에서 평화의 불을 봉안하고 설두사 측과 양국 경색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 업무협약을 맺는다.

선묵 혜자 스님은 "사드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는 상황에서 관계개선과 우호증진, 평화정착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에 중국 순례에 나서게 됐다"며 "각 나라 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은 종교의 근본 목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파라미타)도 3월 17일 중국 북경에서 중화전국청소년연합회 소속 국제청년교류센터와 청소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날 맺어지는 협약은 2010년 7월 진행된 1차 업무협약의 기간 종료에 따른 연장 협약으로 파라미타와 중국 국제청년교류센터 측은 청소년 교류의 장을 매년 한차례씩 가져왔다. 한 · 중 갈등 국면에서 협약 연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청소년 교류는 이어가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에 따라 2차 업무협약이 이뤄지게 됐다.

中불교, 롯데호텔 거부해
예비회의 예정대로 진행

어려워도 불교 교류 '꾸준'
108산사회, 5월 中설두사서
평화의 불 봉안, 화해 '물꼬'
파라미타 · 中청년교류센터
3월 17일 청소년 교류 협약

파라미타 회장 심산 스님은 "이번 협약에는 20년 넘게 꾸준히 중국 측과 신뢰를 쌓아온 상인 스님의 역할이 컸다"며 "교류에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불교가 한 · 중 정치관계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양국 신뢰를 위해 꾸준히 교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 · 중 · 일 불교의 황금유대가 동북아시아의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 불교는 한국부터 중국, 일본까지 아우르는 문화적 기호이자 삶의 방식이었다"면서 "한국과 중국의 교류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다른 사상보다 양국이 직면한 공통 문제를 타파할 수 있다. 한 · 중 · 일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화코드로서 불교 교류를 지속 활용하고 개발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헌재 결정 승복… 국민 통합 이끌어야"

불교계, 평화적 민심 수습 당부 · 호소 잇달아

불교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수용하고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아닌 '평화 르네상스'의 시작으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3월 9일 '광장에 핀 평화의 꽃, 국민이 함께 지켜냅시다!'란 제하의 호소문을 통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는 것이 마땅함을 밝히며,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당부했다.

화쟁위는 "탄핵에 대한 상반된 견해는 쉽게 좁혀지지 않을 듯하다. 건강한 사회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 방식은 지극히 평화로워야한다. 나와 다른 견해를 존중하면서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상대편 의견도 경청할 수 있다면 탄핵심판은 그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그간 지켜온 평화 집회문화를 이어갈 것을 당부하며 "이번 탄핵심판 후 광장에 분출될 민심이 대립과 갈등의 아픈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닌, 평화의 르네상스를 여는 새 전환점이 되도록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앞서 3월 6일 조계종(총무원장 자승)도 대변인 주경 스님(기획실장) 명의로 '국민화합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헌재 판결을 존중해 국민화합으로 국가를 조속히 안정시켜야한다고 호소했다.

조계종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헌재 판결에 승복해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이 화합을 이뤄 국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튼튼한 안보와 외교전략 속에서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고 민주주의를 더욱 꽃피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태고종도 3월 7일 헌재 판결에 대한 존중 의사를 밝히고, 향후 사회통합과 국민 안녕의 일념으로 갈등과 대립 해소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박아름 기자



불심으로 다시 뛰자 화합의 대한민국

탄핵 정국과 한중 갈등으로 국내외 정세가 혼란스러웠던 3월 9일.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서울 조계사에는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도량등이 걸렸다. 형형색색 연등으로 꾸민 글귀에는 공업중생으로서 우리 시대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자는 불자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조계사 측은 "탄핵 찬반으로 나뉜 국론을 하나로 하자는 의미"라며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한데 뭉쳐 몸도 마음도 다시 뛰자"고 취지를 설명했다.

글 · 사진=노덕현 기자

갈등 극복 해법 찾을 '금강포럼' 발족

천태종 3월 5일 관문사서… 초대 이사장 춘광 스님

천태종이 현 사회에 만연하는 대립과 갈등을 극복할 해법인 사회적 소통 확산을 위해 '금강포럼'을 발족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금강포럼(이사장 춘광 · 천태종 총무원장)은 3월 5일 서울 관문사 2층 대강의실서 '금강포럼 발대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이사장 춘광 스님을 비롯해 상임대표 월도 스님(천태종 총무부장), 김종규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포럼 발기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한 금강포럼 이사장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이, 상임대표에는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각각 추대됐다. 또한 공동대표는 우선 박시현 前 천태종 중앙청년회장을 선임했고, 추후 회의를 통해 나머지 대표를 임명키로 했다.

발대식에서 이사장 춘광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새롭게 발을 디딜 금강포럼은 앞으로 천태종의 성성한 종풍을 더욱 확산해 시대 변화를 바르게 향도하고, 대립이 있는 곳에 화해의 청정수를 부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으로 금강정책 연구소, 전국 16개 시 · 도 및 전국 시 · 군 · 구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인 금강포럼은 사회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경험을 통해 소통과 대화, 협상 및 참여 주체가 되도록 리더 발굴과 지원, 종단의 인재양성 및 조직화 추진에 진력할 방침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사고

기자를 찾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불교전문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일할 인재를 찾습니다.

응시자격 및 전형방법

모집부문	모집인원	응시자격	전형절차 1차	전형절차 2차
취재부 수습기자	0명	① 수습기자: 2017년 2월 졸업자 이상 ② 공 통: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남자는 병역필 및 면제자)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 접

원서접수기간 및 방법

1.접수기간 : 2017년 3월 24일(금)까지
2.접수방법 : 본사 홈페이지 현불닷컴(http://www.hyunbul.com) 또는 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현불뉴스(http://www.hyunbulnews.com)에 접속하시면 모집공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cgseo@hyunbul.com
3.제출서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시험당일에 제출하십시오.
4.1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인터넷 공고 (문의전화 : 02-2004-8204)

대원 문재현 선사님 현재 86권째 서적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만공 · 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선문염송 30권, 전등록 30권을 모두 역해하여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한 혜안으로 화엄경 81권의 역해를 마치다!!



불조정맥 제78대인 명안종사의 눈으로, 역해와 더불어서 각권과 각품마다 자문자답의 결문으로 선미(禪味)를 더하여, 대천세계를 손바닥의 겨자씨 들여다보듯이 한 불보살님들의 지혜와 신통으로 누리는 불가사의한 화엄세계를 열어 보였다.

화엄경 81권 중 9권 출간

출간 불사

모연문

전자책 5권 무료 다운로드

전자책 1, 2, 3, 4, 5권을 무료로 공개하였으니 읽어 보시고 만인에게 권할 만한 화엄경이라고 여기신다면 81권의 서적과 전자책 출간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료 전자책은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www.zenparadise.com / 불사문의 : 010-4520-7963〉

* 정법의 원류 책 내용 일부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

정법의 원류

〈정법의 원류〉는 불조정맥을 이은 정맥선원의 소개서이다. 정맥선원은 불조정맥 제77조 조계종 전강 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전법선사가 주재하는 도량이다. 〈정법의 원류〉를 통해 정맥선원 대원 문재현 선사의 정맥을 이은 법과 지도방편을 만날 수 있다.

☎ 031-534-3373 도서출판 문젠 (구, 바로보인)